



6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스마트팜 농가 찾아 의견 청취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윤 4월 3일) 제2541호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 22일 도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전북과학관 유치·운영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400억대 국립과학관 유치 올인

전문가TF 운영·용역절차 완료 등 선제적 준비 도내 유관기관 손잡고 과기부 공모 발빠른 대응

전북도가 도내 유관기관들과 손잡고 400억 규모의 국립과학관 유치와 향후 성공적 운영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3층 회의실에서 국립전북과학관 유치 운영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아울러 유치 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 운영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국립전북과학관이 들어설 군산신와 군산대를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자동치용기술원 등 모두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참여기관들은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한편 향후 국립전북과학관에 전시할 연구개발 성과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그동안 전문가TF 운영과 용역절차 완료 등 선제적으로 유치 준비를 마친 만큼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올해 공모 신청을 통해

국립과학관 유치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모자격에 기존 대규모 과학관이 설치됐거나 설립 중인 시도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돼 전북도의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1차분인 올해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관은 국비 245억원을 포함한 400억 규모이며, 전북도는 그동안 추진한 도민 대상 설문조사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한 군산신읍동 근대문화 역사지구 인근 17,712㎡에 지상3층 연면적 약 5,176㎡(1,565여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분야는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체형형 전문 과학관이다.

한편 전국 과학관 운영현황 실태조사와 도민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과학관 시설이 열악하고,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기준 전국과학관 운영현황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내 과학관의 평균 면적은 6,102㎡, 전북소재 과학관 평균면적 2,847㎡로 청소년 등 도민들의 과학문화 체험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도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도내 14개시군, 1,740여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국

립전북과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립 광주과학관이 호남의 거점과학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북은 생활·경제권이 광주·전남과 다른 독자권역으로 국립전북과학관 설립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도민들 역시 국립과학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국립과학관이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국제규모 태권도대회 연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 등

전북도가 7월말에서 8월초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규모 태권도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도는 22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라북도체육회 주관으로 7월29일~8월3일(6일간)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를 11월8일~11월12일(5일간)로 연기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승인대회(GI)인 제4회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8월5일~8월10일(6일간)에서 10월30일~11월4일(6일간)일로 연기했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는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체육회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연기를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전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조성된 태권도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재개하고 지난해 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던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신규 유치함으로써 2개 국제규모 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 했다.

그러나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개최하는 태권도 대회의 특성상 감염 확산 위험성이 크고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선수단의 참가 어려움이 예상, 최근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해 확진자가 다수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전염병 추가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10월~11월로 연기되는 대회도 코로나19의 국내 및 전세계 감염 발생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정부 방역 지침 등을 감안,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대회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광송기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기로 했던 대규모 국제대회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인 도내 확산 방지 및 도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되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회가 연기된 만큼 대체로운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2개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올여름도 덥다'

올여름 전북 지역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주기상지청은 2020 여름철 기상 전망을 통해 "올여름은 평년(24도)보다 0.5~1.5도가량 기온이 높을 것"이라며 "무더위의 절정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집계하는 여름철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12~17일로 각각 평년과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도, 청년실직자에 '3개월간 월 50만원'

1,000명 대상 생활안정 지원... 850여개 시간제 일자리 제공 등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실직자 1,000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850여개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도는 시군과 함께 37억원을 투입해 25일부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 신청시군에 거주하는 만18~39세이하(1980년~2002년생)청년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1.20부터 공고

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이다.

근무처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이 나이와 자격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체제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5월 25(월)일부터 6월 14일(일) 24:00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접수받아, 시·군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선정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도는 또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을 신규고용 시,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한 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도내 청년들이 생생지원금과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영항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020 정읍시의회 219~201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